

총선 한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 급증

전북선관위 31건 적발...금품 살포·비방·흑색선전 등 혼탁 방지 온힘

전북선관위가 4.13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자 정책 선거 등을 유도하는 등 간섭을 쓰고 있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3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나머지 28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 행위(8건), 허위 사실 공표(4건), 시설물 관련(4건) 순이다. 위원회별로 보면 전주 앞산(9명)과 남원(9명)이 가장 많았고 전주 덕진과 정읍 완주가 각각 3명이 적발됐다.

전북선관위는 전주시흥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주시흥과 익산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를 1차 과열·혼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선거구에서 금품 살포와 비방·흑색선전 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예

방·단속된다. 실제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 4명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 범죄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는 지난달 전주 병 선거구 예비후보 B씨가 배우자, 운영 책임자, 팀장과 공모해 지원봉사자 10여명을 고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내용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이날 도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각 정당 도당 대표자와

유권자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정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석자들은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 서명을 비롯해 유권자공약집과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을 벗어나 정당당당한 정책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책임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정책 선거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유권자들께서도 흑색선전보다는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아름다운 선거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4.13 선거 RUN·RUN·RUN

이기동 예비후보, "여론조사 경선 당 결정 존중한다"

국민의당 이기동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는 14일 "전북지역 다다수 예비후보들이 기대했던 '속의매입원제' 경선방식이 채택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점은 안타까우나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기동 국회의원예비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는 그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선출 방식"이라며 "정당의 가치 실현은 곧 후보자의 선정으로 표출되는 것인 만큼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공천 확정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단순공천을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가 과거 양당 독점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느냐 국민이 중심인 새로운 정치 혁명을 이루느냐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낡은 정치인으로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의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 후보자 선택에서부터 시작 한다"며 "본신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인물로 전주시 갑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

새누리 안홍준 등 의원 3명 탈락

새누리당은 14일 여론조사 경선결과 정문헌 안홍준 두 지역구 현역 의원과 아예리사(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 전격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2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3명의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문헌 의원 대신 강원 속초고성양양 후보자로는 이양수 후보가, 안홍준 의원 대신 경남 창원마산회원 후보자로는 윤한홍 후보가 당선됐다. 또 대전 중구에서 경선을 치른 아예리사 의원도 이은경 후보에 패해 공천 탈락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14일 현재까지 현역 컷오프 7명, 경선 패배로 인한 탈락 5명 등 총 12명의 현역이 탈락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2차 경선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서울 6곳 △부산 2곳 △대전 2곳 △세종 1곳 등 17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7개 지역구 중 현역 의원은 총 9명이었다.

더민주,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저소득층 114만명의 부채를 소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헌책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소멸시효와 원성·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민주의 제1단계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고, 금융기관이 보유 한 부실 채권 중 저비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매입 후 일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와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단계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마지막 3단계로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의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훨씬 넘었다"며 "현재 4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경감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도우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야권연대 지도자 결심하면 아직 가능"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14일 "야당의 지도자들이 결심한다면 아직은 가능하다"며 야권연대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국민 지지를 지금 획득하고 있다면 통합이 야권연대 하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현실이 이어 "야권연대"는 명분을 위해 실리를 양

업중하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당의 좌표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라며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당과 야권이 여당을 저지하면서 상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권연대는 명분을 위해 실리를 양

보하지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연대는 굴욕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한 정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김한길은 결과적으로 수구보수의 집권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일만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주기자

이한수 예비후보, 서민 살맛나는 6대 공약 발표

오는 4.13 총선 익산시 갑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이한수 국회의원에 예비후보(이하 이 후보)는 14일 익산시 발전과 희망을 담은 6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 그리고 서민을 위해 살맛나는 6대 공약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8만개 창출, 구도심 재생 및 역세권 개발, 서부권 활성화, 금강 및 민강 물길 잇기 사업 6차산업 유치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담은 6가지 민생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시장 제입 시절 발로 뛰며 만든 5곳의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시 품클러스터유치,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모현동 택지개발 KTX 정차역 유치 등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땀을 쏟아 부었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익산을 졸졸 지켜온 파수꾼으로서 시민과 크고 작은 아픔을 함께 보듬으며 올곧고 깨끗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국민의당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대학생 1,000명 100만원 등록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매년 올라가는 등록금과 취업을 위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공약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약의 추진계획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담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수기자



배병욱 익산시장 예비후보, 보육 강화 정책 제시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배병욱(국민의당) 예비후보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배병욱 예비후보는 14일 익산시장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출산장려로 자녀 1명당 1억원 상당의 자녀수당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인구는 국가와 도시 경쟁력이고 남성의 국방의무 기간이 호봉에 가산되듯이 여성의 출산기간도 국방의무와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수당은 1명 6만원, 2명 12만원, 3명 18만원으로 출산 수 만큼 추가 지급하겠다"며 "자식은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시와 함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선 대상인 7세까지 130여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는 출산장려정책 통합추진과 익산시(관공서) 공사 발주 시 시장간에게 등을 적용하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엄운상 예비후보, "삼천 농촌마을 조성 앞장서겠다"

엄운상 국민의당(전주을) 예비후보는 14일 "도시활력과 성장에너지를 키워 전주사람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싶다"고 약속했다. 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농도교류와 농촌활력 거점이 되는 삼천 농촌마을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자녀가 살아숨쉬는 도시와 예코폴리스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는 2018년까지 전주를 지역에 6개 삼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캠퍼스와 작은 농장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도 아파트 채소밭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권장해 1가구 1텃밭 조성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친환경 생태 옥상 텃밭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와 국회 입법활동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엄 예비후보는 도시녹지 조성을 위해 국비지원사업도 발굴,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정영수기자



이강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표를 던진 무소속 이강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3일 오후 정읍 시가지 삼성병원 앞에 위치한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는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강광 전 정읍시장, 정학수 전 농림부 차관 장남기 언론재단 이사장, 오성택 고창군재경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참석한 내빈들의 소개와 축사에 이어 이강수 예비후보의 인사말,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락케익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축사에 나선 강광 전 정읍시장은 "이강수 후보는 정직과 청렴을 더한 일 잘하는 고창군수로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완벽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결정하는 투표로서 정읍을 고창과 함께 바로 세우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송강 예비후보, "전북도 청년들 삶의 기반 마련"

국민의당 송강 예비후보(김제·부안)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유일한 청년후보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북도 청년들이 동지를 틀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강 예비후보는 14일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제·부안 경선후보자(나우인 권인희 김종희) 4인 중 1명으로 전북지역 경선 예비후보 중 최연소 후보자이다. 송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이번 공천심사는 변화와 희망을 갈망하는 청년세대 및 지역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계속 쇠락해가는 김제·부안의 현실에 대해 기성정치인들의 통렬한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제·부안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기성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최적임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유성엽 예비후보, "힘있는 3선이 일할수 있도록"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민의당의 전북 정읍·고창선거구 단순공천자로 확정됐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선거 단순 및 경선지역 2차 발표에서 자신을 전주시 병 정동영 예비후보, 군산시 김관영 예비후보와 함께 단순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일과 4일 정읍시청과 고창군선거사무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써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읍과 고창이 하나의 선거구가 돼 치르는 첫 총선인 만큼 두 지역을 아우르는 비전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힘 있는 3선의원이 하나가 된 정읍·고창의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관영 예비후보,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참석

국민의당 김관영 예비후보(군산)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데이 30일'을 맞아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위원장은 각 당 대표들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에 서명하고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을 벗어나 정당당당한 정책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책임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정책 선거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유권자들께서도 흑색선전보다는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아름다운 선거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